

설 명절 가정 예배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비추세요)->

예배의 부름 인 도 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이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시29:1~2)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저희의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새 304장(통 404장) 다 같 이

- 1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 하셨네
 - 2절.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의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잇을까
 - 3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 (후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 도 가 족 중

성경봉독 빌립보서 3장 12~16절(신 321) 가 족 중

- 3:12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 3:13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 3:14 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 3:15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 3:16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말씀선포 “우리가 가져야 할 결단” 인 도 자
< 말씀은 뒷면에 있습니다 >

찬 송 새 559장(통 305장) 다 같 이

- 1절.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 2절.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 3절.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주 기도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우리가 가져야 할 결단 ▣

우리민족 고유명절인 설은 새로운 해의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을 강조하며 다가오는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 이렇게 결단하라 말씀합니다.

첫째, 지난 일을 잊어버리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어떤 빌립보 교인들은 행위와 의식을 강조하며 자신들이 받은 영적 은혜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기가 쫓사오니 하며 만족하게 살았던 겁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지난 날을 모두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둘째, 새해는 열심히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본문 13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기억이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 앞으로 나아가려는 걸음을 방해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루어 놓은 업적들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루어 놓은 것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다시 새롭게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그는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신 목적을 잡기 위하여 전력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사도 바울만큼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이 이미 이룬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겠다고 결단했다면 우리도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향해 열심히 살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셋째,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것을 결단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퓏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는 문자적으로 퓏대 즉 목적지를 똑바로 쳐다보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이것은 경주의 승리자에게 상을 주기 위해 심판관 앞에 있는 높은 단으로 올라오도록 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부르심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은 경주 뒤에 있을 영광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일평생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노력하겠다는 한 해의 결단이 있길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걸 육체는 해를 보낼수록 닳아져 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고후4:16). 오늘 말씀대로 결단하며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넘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행복한 설날 가정예배

<영유아·유치부>

말씀 : 요한복음 11:25-26

<유년·초등부>

제목 : 생명이신 예수님



<청소년·청년·장년부>

말씀 : 빌립보서 3:12-16

제목 : 우리가 가져야 할 결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곤지암교회

Gonjiam Presbyterian Church